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백태호 · 최정락*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Abstract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Baek Tae-Ho-Choi Jeong-Rak*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his paper was designed for studying the features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to be helpful to make a diagnosis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ill be helpful to diagnose a Sasang constitution.

Methods

There were 588 patients(248 men, 340 women) who answered questionnaire and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at Constitutional Clinic of Dongguk Bundang Oriental Hospital. Using the response of questionnaire an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homogeneity test and multiple comparison, we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depending on its dining behavior.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Taeumin and Soyangin answered to 'Because digestion is well, I overeat frequently' many more than Soeumin($p<0.01$). Soeumin answered to 'When I eat cold food or greasy food, it hardly digests' many more than Taeumin($p<0.05$). Soeumin and Taeyangin answered to 'Because I have indigestion, I have suffered from infancy' many more than Taeumin($p<0.01$). Soeumin answered to 'I have easily a digestive upset' many more than Taeumin($p<0.01$). Soeumin answered to 'indigestion in case of paying attention' many more than Taeumin and Soyangin($p<0.01$).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Digestion, Questionnaire, Homogeneity Test, Multiple Comparison

I. 緒 論

汗, 大便, 小便, 睡眠 및 消化狀態 등을 근거로 체질별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素證¹⁾은, 실제 임상에서 체질의 진단 뿐 아니라 病變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접수일 2004년 3월 30일; 승인일 2004년 4월 13일
* 교신저자 : 최 정 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Tel: +82-31-710-3737 Fax: +82-31-710-3780
E-mail: doolarge@hanmail.net

특히 四象醫學에서는 각 體質에 적합한 飲食을 분류하여 적절한 體質食餌를 함으로써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있는 바, 素證을 나타내는 症狀 가운데 消化나 飲食에 대한 중요성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사상의학에서 消化나 飲食에 대한 연구로는, 各 體質에 적합에 飲食에 대한 연구²⁻⁴⁾, 體質食餌가 營養狀態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연구⁵⁻⁸⁾가 있으며, 또한 최근에 와서는 김⁹⁾등이 평상시 각 식품들의 섭취 실태와 체질과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는 주로 各 體質別로 적합한 飲食에 대한 相關性의 범위에서 研究되고 있을 뿐, 消化狀態나 食慾 등 전체적 食事習慣과 관련된 研究가 미비하였다. 특히 各 個人의 生活의 樣態가 매우 分化되어 가는 現代사회에서 평소 食慾이나 食事習慣을 어떻게 지냈느냐는 體質別 食餌療法 못지않게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이에 저자는 素證의 근거가 되는 여러 證候 가운데, 특히 食慾, 食事習慣 및 消化의 體質別 相關性을 알아본 결과, 臨床的으로 체질진단이 이루어진 환자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各 體質別로 消化의 특징에 대하여 몇 가지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對象 및 方法

1. 대상 및 기간

2002년 3월 14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약 28주에 걸쳐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 가운데에서 사상체질 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체질을 판정받고, 그에 따라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하여 경과관찰이 확인된 외래 환자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연구방법

1) 자료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588명에게 직접 소화에 대한 설문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체질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만든 차트를 이용하였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설문 문항에 동의할 경우 체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Table 7과 같다.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의 대답은 모두 코드화 하였고, 앞서 진단한 체질과 함께 전산입력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BMI(Body Mass Index)는 ANOVA test를 이용하였고, 유의성 있는 경우 Scheffe 방법을 통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소화에 관한 설

문문항의 답변과 체질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Win10.0을 이용하였다.

III. 結果

1. 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 연령별 분포와 체질별 분포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가 258명, 여자가 352명이며, 연령은 10대에서 80대까지 고루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39.1세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체질별 분포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Sex, Age N(%)

| Age | ≤19 | 20-39 | 40-59 | ≥60 | Total |
|--------|-------------|---------------|---------------|--------------|----------------|
| Male | 23 (3.9) | 114 (19.4) | 85 (14.5) | 26 (4.4) | 248 (42.2) |
| Female | 25 (4.3) | 156 (26.5) | 121 (20.6) | 38 (6.5) | 340 (57.8) |
| total | 48 (8.2) | 270 (45.9) | 206 (35.0) | 64 (10.9) | 588 (100.0) |

Table 2. The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N(%)

| Taeumin | Soyangin | Soeumin | Taeyangin | Total |
|---------------|---------------|---------------|-------------|----------------|
| 175 (29.8) | 136 (23.1) | 267 (45.4) | 10 (1.7) | 588 (100.0) |

2) 체질별 비만정도 비교

BMI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ANOVA test를 이용하여 체질과 BMI를 비교한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러한 BMI의 동질성에 대하여 Scheffe 방법을 통해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태음인과 소양인의 BMI는 타 체질과 다르다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소음인과 태양인간에서 BMI는 통

Table 3. Sasang Constitution and BMI Mean±S.D.

| | Taeumin (N=175) | Soyangin (N=136) | Soeumin (N=267) | Taeyangin (N=10) | Total (N=588) | p-value |
|-----|--------------------|---------------------|--------------------|---------------------|------------------|---------|
| BMI | 25.78 ±2.64 | 23.01 ±2.63 | 20.63 ±2.32 | 19.54 ±2.18 | 22.70 ±3.34 | 0.000 |

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Multiple Comparison of BMI

| (I) Constitution | (J) Constitution | Mean Difference (I-J) | Std. Error | Sig. |
|------------------|------------------|-----------------------|------------|-------|
| Taeumin | Soyangin | 2.7667 | 0.2850 | .000* |
| | Soeumin | 5.1422 | 0.2425 | .000* |
| | Taeyangin | 6.2330 | 0.8106 | .000* |
| Soyangin | Taeumin | -2.7667 | 0.2850 | .000* |
| | Soeumin | 2.3754 | 0.2626 | .000* |
| | Taeyangin | 3.4662 | 0.8169 | .000* |
| Soeumin | Taeumin | -5.1422 | 0.2425 | .000* |
| | Soyangin | -2.3754 | 0.2626 | .000* |
| | Taeyangin | 1.0908 | 0.8030 | .605 |
| Taeyangin | Taeumin | -6.2330 | 0.8106 | .000* |
| | Soyangin | -3.4662 | 0.8169 | .000* |
| | Soeumin | -1.0908 | 0.8030 | .605 |

* p < 0.05

2. 설문지를 통한 체질별 소화의 특징 비교

1) 체질별 소화의 특징비교

소화의 특징에 대한 문항은 ‘소화가 잘되는 편’, ‘소화가 잘 안 되는 편’, ‘특정한 음식에 대해 소화 상태가 불량’의 3가지 범주에서 묻고 있다. 이러한 소화의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먼저 ‘소화가 잘되는 편’에서는 ②번 문항의 p-value가 0.000으로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각 체질간의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과 소양인은 p-value가 0.000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양인과 소음인은 0.031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Table 6).

‘특정한 음식에 대해 소화 상태가 불량’에서는 ⑤번 문항의 p-value가 0.019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각 체질간의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value가 0.003으로 통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에서는 ⑬번 문항의 p-value가 0.006, ⑭번 문항이 0.001, ⑮번 문항이

Table 5. The Answer of the Questionnaire N(%)

| No. | Taeumin (N=175) | Soyangin (N=136) | Soeumin (N=267) | Tayangin (N=10) | Total (N=588) | p-value |
|-----|-----------------|------------------|-----------------|-----------------|---------------|---------|
| ① | 69(39.4) | 45(33.3) | 79(29.6) | 2(20.0) | 195(33.2) | 0.144 |
| ② | 53(30.3) | 30(22.2) | 37(13.9) | 1(10.0) | 121(20.6) | 0.000* |
| ③ | 64(36.6) | 58(43.0) | 120(45.1) | 3(30.0) | 245(41.8) | 0.282 |
| ④ | 17(9.7) | 23(17.0) | 42(15.7) | 1(10.0) | 83(14.3) | 0.216 |
| ⑤ | 33(18.9) | 32(23.7) | 85(31.8) | 2(20.0) | 152(25.9) | 0.019* |
| ⑥ | 24(13.7) | 27(20.0) | 51(19.1) | 3(30.0) | 105(17.9) | 0.290 |
| ⑦ | 27(15.4) | 22(16.3) | 49(18.4) | 0(0) | 98(16.7) | 0.432 |
| ⑧ | 7(4.0) | 7(5.2) | 14(5.2) | 0(0) | 28(4.8) | 0.822 |
| ⑨ | 27(15.4) | 20(14.8) | 36(13.5) | 2(20.0) | 85(14.5) | 0.897 |
| ⑩ | 13(7.4) | 16(11.9) | 31(11.6) | 0(0) | 60(10.2) | 0.311 |
| ⑪ | 6(3.4) | 5(3.7) | 11(4.1) | 0(0) | 22(3.7) | 0.910 |
| ⑫ | 21(12.0) | 18(13.3) | 46(17.2) | 3(30.0) | 88(15.0) | 0.227 |
| ⑬ | 7(4.0) | 8(5.9) | 33(12.4) | 2(20.0) | 50(8.5) | 0.006* |
| ⑭ | 11(6.3) | 17(12.6) | 53(19.9) | 1(10.0) | 82(14.0) | 0.001* |
| ⑮ | 59(33.7) | 54(40.0) | 138(51.9) | 3(30.0) | 254(43.3) | 0.001* |

* p < 0.05

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하여 체질간의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시행하였다.

⑬번 문항에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에서 p-value가 0.003으로 통계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음인과 태양인은 p-value가 0.022, 소양인과 소음인에서는 0.046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6).

⑭번 문항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value가 0.00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Multiple Comparison of No. ②, ⑤, ⑬, ⑭, ⑮

| (I) Constitution | (J) Constitution | p-value | | | | |
|------------------|------------------|---------|--------|--------|--------|--------|
| | | ② | ⑤ | ⑬ | ⑭ | ⑮ |
| Taeumin | Soyangin | 0.121 | 0.283 | 0.425 | 0.052 | 0.290 |
| Taeumin | Soeumin | 0.000* | 0.003* | 0.003* | 0.000* | 0.000* |
| Taeumin | Taeyangin | 0.170 | 0.928 | 0.022* | 0.643 | 0.809 |
| Soyangin | Soeumin | 0.031* | 0.098 | 0.046* | 0.075 | 0.020* |
| Soyangin | Taeyangin | 0.358 | 0.780 | 0.092 | 0.804 | 0.550 |
| Soeumin | Taeyangin | 0.728 | 0.429 | 0.475 | 0.440 | 0.174 |

* p < 0.05

⑮번 문항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value가 0.000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양인과 소음인의 p-value는 0.0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Table 6).

2) 설문간의 내적 일치도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화의 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5179로 나타났고, 구성 설문 문항 가운데, '소화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①번, ②번, ③번 문항은 각각 문항을 제거한 후 alpha 값이 0.6391, 0.5892, 0.5241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높아졌다. 반면에 '소화가 잘 안 되는 편', '특정한 음식에 대해 소화 상태가 불량'의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은 어느 한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설문 구성의 일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IV. 考 察

素證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⁰⁾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다가, 『東醫壽世保元』¹¹⁾에 와서 完實無病, 恒心, 大病 및 몇가지 特異證候로 함축하여 기록하였다.¹²⁾ 또한 『東武遺稿』¹³⁾에서도 일부 설명되었다.

그 중에서 소화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素證을 논한 「病變 第五統」¹⁰⁾에는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 第五統」¹⁰⁾에는 또한 “太陽少陽之病 唯嘔逆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也.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人尤甚也. 嘔逆吐食者 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라고 하였는데, 嘔吐나 大便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소화의 상태로도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陰人은 下降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泄瀉後重이 있으면 기운이 더욱 下陷되므로 병이 惡化되

Table 7. Internal Consistency of the Questionnaire

| | Question | alpha if Item Deleted | Cronbach's alpha |
|---------------------|--|-----------------------|------------------|
| 소화가 잘 되는 편 | ① 평소 소화가 잘 되는 편 | 0.6391* | 0.5179 |
| | ②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 0.5892* | |
| | ③ 평소에 소화가 잘되는 편인데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잘 안되고 식욕이 없다 | 0.5241* | |
| 특정한 음식에 대해 소화상태가 불량 | ④ 특정한 음식(기름진 것, 찬 것, 그 외)을 먹으면 불량 | 0.4587 | |
| | ⑤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먹었을 때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0.4600 | |
| | ⑥ 매운 음식보다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우유, 밀가루 음식등의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 0.4637 | |
| | ⑦ 매운 음식, 짠 음식 등을 먹으면 찬 음식보다 소화장애가 잘 일어나고 위가 쓰린 것이 다른 사람 보다 심하다 | 0.4931 | |
| | ⑧ 찬 음식보다 매운 음식, 짠 음식, 우유, 닭고기 등을 먹었을 때 건강이 나빠진다 | 0.4822 | |
| | ⑨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거나 변이 물어지고 가스가 차고 변이 시원하지 못하다 | 0.4523 | |
| | ⑩ 과식을 하는 경우에 주로 탈이 나며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해산물, 어류등을 먹었을 때 부작용. | 0.4698 | |
| | ⑪ 평소에 채식을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육식을 하면 구토 발생 | 0.5022 | |
| | ⑫ 소화가 잘 안되는 편 | 0.4990 | |
| 소화가 잘 안되는 편 | ⑬ 소화가 안되어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했다 | 0.4868 | |
| | ⑭ 쉽게 체하는 편 | 0.4691 | |
| | ⑮ 신경을 쓰면 소화불량 | 0.4497 | |

* Item that has deficiency of Internal Consistency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역질이나 飮食物을 토하는 것은 기운이 위로 上升하는 것이므로 그 병이 좋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少陰人 平時屢噫者病也 霍亂時屢噫者病解也…”라고 하고 있는데, 소음인은 飮食善化가 잘 되어야 完實無病한 것이므로 평소 소화를 잘 하지 못하여 자주 트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霍亂이 있는 경우 트림을 하는 것은 飮食物이 내려가는 징조이므로 병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太陰人病中 噫氣出張則 肺氣不抑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태음인이 트림을 크게 하는 것은 偏小之臟인 肺의 기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少陰人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陽人 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라고 하여, 체질에 따라서 병의 輕重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소음인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차서 泄瀉하는 冷泄이 頭痛, 發熱같은 병보다는 重하며, 소양인은 평소 먹기를 잘하며 소화력도 뛰어난 편이므로, 소양인에서는 땀이 나거나 기침하는 結胸 증세와 같은 병이 배가 아픈 증세보다 重하다고 인식하였다.

“少陰人病 間間泄瀉而咳靜雄壯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 少陽人病 間間咳嗽而善食身冷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라고 하였으며, “…少陽人 滯痢病 浮腫有漸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라고 하고 있어 체하거나 설사하는 경우가 다른 동반되는 증세에 따라서 輕重이 달라짐을 언급하였다.

“少陰人 有暴泄泄瀉過三日則 其病必重 少陽人有久泄泄瀉雖月餘 其病輕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소음인에서 泄瀉하는 것을 少陰人少陰病에서 주로 다루었으며, 소양인에서 泄瀉하는 것을 少陽人亡陰病에서 주로 다루면서 소양인의 泄瀉도 急하고 危重한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東醫壽世保元』「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¹¹⁾에서는 “盤龍山老人論曰 少陽人身熱頭痛泄瀉 當用猪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泄瀉 當用滑石苦參湯荊防地

黃湯 此病 名謂之亡陰病”이라고 특별히 소양인의 泄瀉에 대하여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東武遺稿』¹³⁾에서는 “少陽人 其病雖重 能進飮食 則十全無憂也. 少陰人 其病雖重 而能飮冷水 則其病無憂也. 太陰人 其病雖重 而語聲緩壯 則其病十全無憂也.”라고 하였다.

이러한 噫氣나 嘔吐, 泄瀉 등의 상태는 소화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헌에서 기술한 내용과 임상적 경험과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체질별로 평소의 소화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사용한 설문지는 체질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素證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로, 설문지는 땀(汗), 대변, 소변, 수면상태, 식욕·식습관·소화의 5개로 구분되었다. 최근, 이러한 설문지를 통하여 素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汗¹⁴⁾, 大便¹⁵⁾에 대하여 사상체질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임상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 설문지를 통한 체질별 소화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임상적으로 이미 체질진단이 된 대상자들에게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만든 素證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각 체질에 따른 소화의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화의 특징 가운데 ‘소화가 잘 되는 편’에 속하는 문항들 중에서 ①, ③번 문항은 체질별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번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의 문항에서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하여 脾胃機能이 왕성하여 소화력이 좋다는 통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체질간의 상관분석에서 체질별 차이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01$),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태양인과 다른 체질과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화가 잘 되고 과식하기 쉬우며,

특히 태음인이 더 그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정한 음식에 대해 소화상태가 불량’에 속하는 문항들 중에서는 ⑤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체질별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번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먹었을 때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특정한 음식들에 대해 소화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체질간의 상관분석에서 체질별 차이가 나타났고($p < 0.05$),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소음인과 소양인의 관계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등 어떤 특정한 음식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소음인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소화가 잘 안되는 편’에 속하는 문항들 중에서 ⑫번 문항은 체질별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⑬번 ‘소화가 안되어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했다’의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소양인이나 태음인에 비하여, 소화상태가 좋지 못함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 체질간의 상관분석에서 체질별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은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태음인과 태양인, 소양인과 소음인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5$). 그러나, 비록 태양인과 태음인에서 태양인이 태음인과 비교하면 소화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태양인의 수가 부족하므로 다른 체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⑭번 ‘쉽게 체하는 편’의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체하기 쉽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질간의 상관분석에서 체질별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은 매우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p < 0.001$). 그러나, 소양인이나 태양인과 비교하여 소음인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잘 체한다는 것이 소음인만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⑮번 ‘신경을 쓰면 소화불량’의 문항에서는, 신경을 쓸 경우 소음인에서 소화불량이 보다 생기기 쉽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질간의 상관분석에서 체질별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은 매우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1$), 소양인과 소음인에서도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태양인과 다른 체질과의 관계는 알 수 없었지만, 소음인이 태음인이나 소양인에 비해 신경을 쓰면 소화불량이 쉽게 걸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항 구성상에 ①번 문항이 ②, ③번 문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②, ③번 문항에 응답한 경우 ①번 문항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체질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p-value가 0.025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태음인은 소음인, 태양인에 대하여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 < 0.05$). 이는 ②번 문항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태음인과 소음인의 차이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적어도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하여 소화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이다. 그러나, 설문 구성상의 내적 일치도는 세 개 문항 모두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설문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던 ④번 문항은 ⑤번 문항과 거의 동일하며, ⑤번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④, ⑤번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로 간주할 경우, 체질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각 체질간 p-value가 0.0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이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음인과 태음인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이는 ⑤번 문항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④, ⑤번 문항은 하나의 문항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⑬, ⑭, ⑮번 문항은 ⑫번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에 부속되는 문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⑬, ⑭, ⑮번 문항에 응답한 경우 ⑫번 문항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체질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각 체질간의 p-value가 0.001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이에 대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인과 태음인은 매우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이는 ⑭번 문항과 동일한 결과이며, ⑬, ⑮번 문항의 결과에 포함되는 결과였다. 적어도 소음인이 태음인에 비하여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⑫, ⑬, ⑭, ⑮번 문항은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⑫번 문항은 다른 3개 문항에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에 대한 신뢰성은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여러 문항으로 질문하여 이러한 항목들이 유사한 값들을 갖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²⁸⁾ 내적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다.

소화에 관한 설문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5179로 나타났고, 구성 설문 문항 가운데, ①, ②, ③번 문항은 내적일치도가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설문문항의 유사성으로 인해 응답이 분산되어 내적일치도를 결여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면적인 문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지, 특정한 음식을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는지를 묻는 나머지 문항은 어느 한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설문 구성의 일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체질의 특성상 태양인의 수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수가 적었다. 통계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태양인의 관찰 수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항이 문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응답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항의 중복을 피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자의 시각에서 만든 설문 보다는 문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고, 대상자가 작성하기 쉬우며, 이해하기 쉽도록 설문을 구성하여, 좀 더 명확한 체질별 차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체질별 消化狀態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14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하여,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체질 판정을 받은 후, 사상인 체질에 따른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하여 경과관찰이 확인된 외래환자 가운데 설문지를 작성한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질별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太陰人과 少陽人이 少陰人에 비하여 ‘비교적 소화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 < 0.01$).
2.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하여, ‘찬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먹었을 때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 < 0.05$).
3. 少陰人과 太陽人이 太陰人에 비하여 ‘소화가 안되어 어릴 때부터 항상 고생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 < 0.01$).
4. 少陰人이 太陰人에 비하여, ‘쉽게 체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 < 0.01$).
5. 少陰人이 太陰人과 少陽人에 비하여 ‘신경을 쓰면 소화불량’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p < 0.01$).

參考文獻

1. 宋一炳.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8;10(2):1-14.
2.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식품에 관한 고찰. 사상학회지. 1995;7(1):143-168.
3. 김지영,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체질별 식품

- 분류의 타당성과 활용에 관한 소고. 사상의학회지. 1995;7(1):263-278.
4. 김지형, 고병희. 체질별 식품표에 근거한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당뇨식단(1800kcal)의 초보적 제시. 사상의학회지. 1996;8(1):395-411.
 5. 이의주, 이수경, 김은진, 조여원,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에 의한 체질식이의 효과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 (I). 사상의학회지. 1998;10(2):305-326.
 6. 김윤영, 조여원, 송일병, 이의주. 고지혈증 환자에서 사상체질 치료식의 임상적 효능. 한국영양학회지. 2003;33(8):824-832.
 7. 김은진, 조여원, 송일병. 사상의학의 체질에 따른 식품분류와 태음식 섭취가 각각 체질의 혈액 생화학적 지표 및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99;32(7):827-837.
 8. 문희자, 정숙자. 사상체질이론의 간호학적 접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6;10(1):139-154.
 9. 김판준, 임화재, 김중원. 사상체질에 따른 식습관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2001;13(3):59-74.
 10.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226, 230, 235~244
 1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서울: 여강출판사. 2002:118, 161
 12. 김선민, 송일병. 동의수세보원초본권과 동무유고에서의 소증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2000;12(2):67-68.
 13. 李濟馬. 國譯韓醫學大系 15 - 東武遺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220-221.
 14. 최재영, 이영섭,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땀(汗)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대한한의학회지. 2002;23(4):186-195.
 15.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58-68.
 16. 김은경, 박양규. 윈도우용 SPSS 통계분석 8. 21세기사. 서울: 2000:206-209.